

통일 칼럼

北 핵무기 생산능력

최근 한국을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커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비롯해 추가 핵시설의 활성화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고 있다.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1957년 창설된 유엔 산하 기구다.

핵 물질의 군사적 이용, 즉, 원자로 제조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지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곳을 이끄는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3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한 그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영변에 새로운 핵농축 시설이 건설된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위성사진을 통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북한에서 우라늄 광석을 가공하는 곳은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공장이다.

인근 광산에서 채굴한 우라늄 원석을 분쇄해 화학물질에 녹인 뒤 이를 건조해 노란색 분말 형태의 이른바 '옐로우케이크'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올해 1월, 용매를 추출하고 침전시키는 공장 내 핵심 시설의 지붕 공사가 시작됐는데, 최근 공사가 마무리된 모습이 확인됐다.

정련 과정에서 나온 고체 폐기물을 쌓아놓은 구역의 면적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평산 공장이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평산 공장에서 생산된 우라늄 정광을 농축 처리하는 곳은 영변의 핵 시설이다.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이곳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추가로 증설된 모습이 위성을 통해서 확인됐다.

영변 핵 단지에서는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의 생산 확대 움직임도 감지됐다.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속도로 밀



정복규  
논설위원

리된 모습이 확인됐다.

정련 과정에서 나온 고체 폐기물을 쌓아놓은 구역의 면적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평산 공장이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평산 공장에서 생산된 우라늄 정광을 농축 처리하는 곳은 영변의 핵 시설이다.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이곳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추가로 증설된 모습이 위성을 통해서 확인됐다.

영변 핵 단지에서는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의 생산 확대 움직임도 감지됐다.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속도로 밀

착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으로 알려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도 큰 변화가 포착됐다. 이곳은 대형 로켓 조립동과 엔진 실험대, 발사대까지 갖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지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발사대 인근엔 건물도 백백이 들어선 모습이었는데, 최근 위성사진을 보니 대부분 철거됐다. 발사장 인근 마을도 최근 한 달 새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깨끗하게 정리된 자리에는 대형 발사체 수송을 위한 지원 시설이나 최신식의 로켓 조립 시설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엔진 시험장이나 조립장, 시험 평가장 등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증설하며 핵무기의 대량 생산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증설하며 핵무기의 대량 생산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증설하며 핵무기의 대량 생산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증설하며 핵무기의 대량 생산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증설하며 핵무기의 대량 생산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고문

졸음운전 단 3초면 사고로 이어진다

계절상 4월~5월은 여행이 잦아지는 계절이며 따뜻한 날씨는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최근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보면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체 리듬 변화와 춘곤증으로 인해 운전자의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졸음 운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다중 추돌 및 대형 사고와 직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졸음운전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날 음주 등으로 인한 수면 부족 및 피로 누적, 장시간 운전 및 야간 운전, 식사 후 운전(식곤증), 차량 내부 밀폐 및 계절적 요인(춘곤증)으로 볼 수 있다.

졸음운전 예방법으로는 출발 전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취하고 운전 중 차량 내 적정 온도 유지 및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장거리 운전일 경우 2시간마다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졸음 발생 시 즉시 가까운 휴게



장원종  
부안경찰서  
교통수사팀  
경감

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운전해야 할 것이다.

운전 중 하품이 나거나, 눈꺼풀이 무거운 현상이 느껴질 경우 '조금만 더 가자'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졸음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행위

로, 단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운전을 중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전방 주시를 잘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소중한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타임 100' 갈라 참석한 블랙핑크 제니



블랙핑크의 제니가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제2 및 링컨 센터 프레더릭 P. 로즈 홀에서 열린 '타임 100' 갈라에 참석해 포토티임을 갖고 있다. '타임 100'은 매년 타임지(TIME)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제니는 아티스트 부문에 선정됐다.

사설

쟁점은 여전히 이란 핵

지난 1차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사로 여겨지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였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이 쟁점에서 이란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중점이 가능한 조건을 달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두고 한층 더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20년 대 5년은 1차 협상에서 두 나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이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었다.

미국은 '농축 영구 금지'에서 한 발 물러나 20년 농축 중단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3년에서 5년간 중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때문에 이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2차 협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팀이 제시했던 '20년 중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20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즉 집어 말하면서 "이란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출신 강경파인 사무총장이 협상단의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조율하며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시점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란 내의 농축 우라늄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종전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 약 440kg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두고도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기대와 달리 2차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휴전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안한 울여름 한반도

이례적으로 4월에 발생한 슈퍼태풍으로 인해, 한국인 수천 명이 고향과 사이판에 발이 묶였다. 4월에 슈퍼태풍으로 발달한 4호 태풍 실라코가 괌과 사이판을 관통하면서 3천 명가량의 한국인의 발이 묶인 걸로 추산된다.

실라코의 순간 최대풍속은 시속 240킬로미터를 기록했다. 최저 중심 기압은 896헥토파스칼이었다. 4월 발생한 모든 태풍 가운데 2021년 수리개 이후 역대 최강이다.

이번 4월 슈퍼태풍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지금 30도 안팎으로 무척 뜨거운 상태다. 해수면뿐 아니라 바다 깊숙한 곳까지도 수온이 높은 상태라 태풍 입장에선 연료가 아주 충분한 것이다.

게다가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풍이 주로 부는 적도에 서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 엇갈린 바람이 공기에 회전력을 더하면서 태풍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충분한 연료를 채우고 시동도 걸렸는데, 속도제한 없는 고속도로처럼 장애물도 없는 상태다. 보통 4월에는 이 상층과 하층대기의 바람 차이가 강해 태풍이 수직으로 발달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하층의 바람 차이가 거의 없어 이 실라코가 수직으로 높게 발달할 수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넓게 버티면서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빠져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울여름 엘니뇨로 이 흐름이 바뀔 수 있고다.

여기에 역대급으로 뜨거운 바다까지 더해지면, 이번 여름,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할 수도 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